‘7080 충장축제’ 내일 개막

1만여명 거리퍼레이드 등 6일간 행사 다채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옛 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추억의 시간여행 전시관 개관을 시작으로 개막한다.

‘추억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충장축제에서는 1만여명이 참여하는 개막식 퍼레이드를 비롯해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전국직장인밴드 경연대회 등 전국 단위 4대 경연대회와 그때 그 시절의 먹거리 체험 등 총 46개 프로그램이 내달 2일까지 열린다.

특히 올해 충장축제 개막식에는 전국 50여개 단체장과 중국 광저우(廣州)시 월수구 대표단과 공연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올해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승격된 충장축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충장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거리 퍼레이드에서는 수십 대의 차량과 퍼포먼스 팀이 수창초등학교부터 금남로 공원을 지나며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추억의 전시관에서는 지난 1970~1980년대 생활상이 재현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열리는 ‘추억의 동창회’에서는 광주일고·동신고·중앙초교 등 광주지역 3개 학교의 졸업생과 은사 등이 만난다.

축제기간 동안 충장로와 금남로 골목 곳곳에서 열리는 아코디언 연주와 보컬그룹 공연 등 골목길 문화제도 충장축제의 주요 볼거리로 손꼽힌다. 골목길 문화제에는 7개 장르 20개팀이 참여한다.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올해 충장축제는 교육과 즐거움이 결합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충장축제가 시민의 화합과 세대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축제 내용과 일정은 충장축제 인터넷 홈페이지(www.cjr7080.com)를 참고하거나, 축제 준비위원회 전화(062-608-2247~8)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제8회 충장축제 문화전당 특설무대 일정표(오후)

9.27(화)	9.28(수)	9.29(목)	9.30(금)	10.1(토)	10.2(일)
거리퍼레이드 (2시30분~7시)	정읍시립국악단 (4시~5시)	나주삼현육각 (5시~6시)	추담예술단 (4시~5시)	경계조정 축하공연 (2시~3시)	전국자치센터 경연대회 본선 (1시30분~4시30분)
개막식 (7시~8시)	조선대 65주년 기념콘서트 (6시~10시)	추억콘서트 (6시~10시)	무등가요제 (6시~10시)	고싸움 놀이 (3시~5시)	전국직장인밴드 경연대회 본선 (4시30분~6시)
축하공연 (8시~10시)				축하공연 (6시~10시)	폐막공연 (6시~10시)

광주시향 ‘더 베스트 클래식’ 시민을 위한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야외 음악회가 지난 24일 밤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

“비리 교원들 징계 너무 가볍다”

장휘국 교육감 잇단 재심 요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산하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요구하는 등 비위 교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최근 여직원 성희롱과 직무태만 등의 혐의로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던 산하 교육청 A 팀장에 대해 수위가 낮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한 단계 높은 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아냈다.

애초 중징계 요구된 A팀장은 동료 여직원 등의 선처 호소 등이 감안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장 교육감은 정직처분을 받은 B교장에 대해 수위가 낮다며 교과부에 재심을 요구, 해임처분을 이끌어냈다. B교장은 방과 후 강사와 교사 등으로부터 떡값 등 6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징계 요구됐다.

그러나 B교장과 혐의가 비슷한 C교장은 파면 처분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 양정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C교장은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낮춰졌다.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해 “투명한 원칙과 기준없이 재심이 이뤄지면 특정 인사들에 대한 표적징계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징계수위가 낮은 인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심을 요청하다 보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고심 끝에 재심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집행부가 표적징계를 시도해도 인사위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모든 긴급전화 119로 하세요”

광주지역 가스·수도 등 11개 통합서비스

청소년 상담, 가스, 수도 등 11개 분야별로 나눠 운영되던 광주지역 긴급전화가 119로 통합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119 신고서비스 확대사업에 광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19 신고서비스 확대사업’은 여성이나 청소년문제, 수도, 가스 등 긴급전화를 119에서 통합해 접수·처리하는 원스톱 신고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일일이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없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119에 신고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되는 긴급전화는 여성긴급(1366), 청소년상담(1388), 가스(1544-4500), 해양도시가스(1544-1115),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등 11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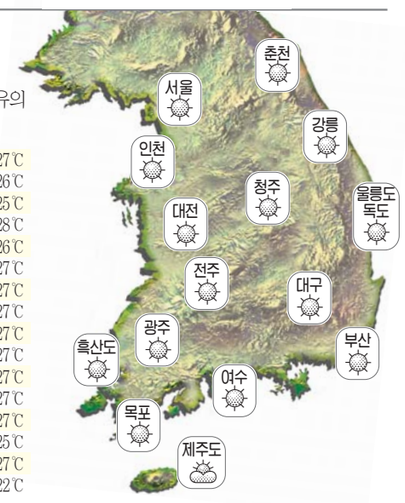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3분 해짐 18시 25분 달뜸 04시 42분 달짐 17시 18분

감기 조심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광 주	맑음	15/27℃
목 포	맑음	16/26℃
여 수	맑음	18/25℃
나 주	맑음	13/28℃
완 도	맑음	14/26℃
구 례	맑음	12/27℃
강 진	맑음	13/27℃
해 남	맑음	11/27℃
장 흥	맑음	11/27℃
순 천	맑음	13/27℃
영 광	맑음	12/27℃
진 도	맑음	13/27℃
전 주	맑음	13/27℃
군 산	맑음	13/25℃
남 원	맑음	11/27℃
흑산도	맑음	17/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주의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0:46 13:05	06:17 18:34
여수	08:01 20:21	01:46 14: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화)	28(수)	29(목)	30(금)	10/1(토)	2(일)
날 씨						
최저/최고	15/27	15/26	17/23	17/22	13/21	12/21

교통사고 가장 많이 발생

서구 치평동·목포 상동

광주·전남 ‘불명예’ 1위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서구 치평동과 목포시 상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청이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과 목포시 상동이다.

서구 치평동에서는 지난해 4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루 평균 1.23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목포시 상동에서는 41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하루 평균 1.12건의 교통사고가 난 셈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으로 1104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신학용 의원은 “비슷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난다는 것은 관리·감독 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사망사고 다발 지역의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